
부 록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89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	95
3. 그림 및 통계표	96
4.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99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¹⁾

2024년도 제19차(2024.10.11.)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

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의결사항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뉴스/자료 > 뉴스 및 의사록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및 의결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00%에서 연 1.75%로 인하

제20차(2024.10.31.)

◇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발행

-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력산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2종(반도체, 조선)을 발행

제22차(2024.11.28.)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인하

제23차(2024.12.4.)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금융채를 대상증권으로 추가

- 신규 대상증권의 매매는 환매조건부매매로 한정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

□ 신규 추가되는 대상증권에 대한 위험관리 근거 마련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

□ 현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 중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추가로 대상기관에 포함

제25차(2024.12.24.)

◇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인하속도를 유연하게 결정

□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공개시장운영 원칙 수립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영향받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정치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및 금년 성장률은 11월 전망치(24년 2.2%, 25년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 대응책, 미 행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8%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상당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전국주택가격은 하락 전환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 2025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 2025년중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 금액의 최고한도와 상한기한, 이율 및 기타 조건을 정함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 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3.0조원에서 5.0조원을 감액한 8.0조원으로 한다.
 -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9.3조원에서 5.0조원 증액한 14.3조원으로 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2026년 9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을 14.3조원에서 9.0조원 감액한 5.3조원으로 하고, 총 한도를 30.0조원에서 9.0조원 감액한 21.0조원으로 한다.
- 2027년 3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을 5.3조원에서 5.0조원 감액한 0.3조원으로 하고, 총 한도를 21.0조원에서 5.0조원 감액한 16.0조원으로 한다.

제4차(2025.2.25.)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2.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기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지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2.7%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1.9%)에 부합하는 1.9%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를 소폭 하회하는 1.8%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인하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다.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다. 주택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였고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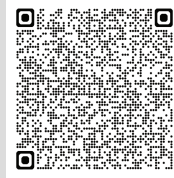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²⁾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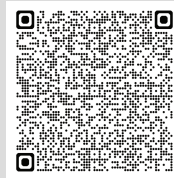
▶ 2024년 10월

2024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4.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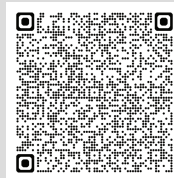
▶ 2024년 11월

2024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4.11.28.)



▶ 2025년 1월

2025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5.1.16.)



▶ 2025년 2월

2025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5.2.25.)



2)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뉴스/자료 > 뉴스 및 의사록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및 의결 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그림 및 통계표

(1) 그림 차례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그림 I-1.	경기선행지수 및 글로벌 PMI	3
그림 I-2.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4
그림 I-3.	국제유가와 원유 재고	4
그림 I-4.	주요국 장기시장금리	5
그림 I-5.	주요 환율 및 미 달러화 지수	6
그림 I-6.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주가지수	6
그림 I-7.	민간소비	8
그림 I-8.	건설투자	9
그림 I-9.	설비투자	9
그림 I-10.	일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통관 기준)	10
그림 I-11.	취업지수	11
그림 I-12.	고용률 및 실업률	12
그림 I-13.	실질GDP 성장률 전망	13
그림 I-14.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그림 I-15.	수입물가(원화 기준) 상승률	15
그림 I-1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16
그림 I-17.	근원물가 상승률	17
그림 I-18.	기대인플레이션율	17
그림 I-19.	물가상승률 전망	18
그림 I-20.	국고채 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	19
그림 I-21.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	19
그림 I-22.	주요 단기금리	20
그림 I-23.	회사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21
그림 I-24.	은행 여수신금리	21
그림 I-25.	코스피 및 주가변동성지수	22
그림 I-26.	외국인 채권 보유증감 및 보유잔액	23
그림 I-27.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보유비중	23
그림 I-28.	M2 증가율 및 공급부문별 증감	24
그림 I-29.	금융상황지수	24
그림 I-30.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및 주택매매거래량	25
그림 I-31.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	26
그림 I-32.	원/달러 환율 및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	27
그림 I-33.	원/달러 환율 변동성	27
그림 I-34.	내외금리차 및 차익거래유인	28
그림 I-35.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	28
그림 I-36.	CDS 프리미엄	28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그림 II-1.	한국은행 기준금리	55
그림 II-2.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2024년 11월 28일)	56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56
그림 II-4.	성장 전망 변화	57
그림 II-5.	물가 전망 변화	57
그림 II-6.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	58
그림 II-7.	기준금리 및 콜금리	58
그림 II-8.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59
그림 II-9.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관련 기자간담회(2024년 12월 4일)	60
그림 II-10.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MPP) 강화 효과	62
그림 II-11.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거래 구조	63
그림 II-12.	SEACEN 총재컨퍼런스 및 센터총회(2024년 12월 6~7일)	64
그림 II-13.	아고라 프로젝트 참가기관 및 국가	66
그림 II-14.	기조적 물가지표	67
그림 II-15.	수출 및 내수 전망	67
그림 II-16.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감 및 주택가격	67
그림 II-17.	월평균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	68
그림 II-18.	신성한 금통위원 기자간담회(2024년 9월 25일)	70

III. 이슈 분석

그림 III-1.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비지표	80
그림 III-2.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80
그림 III-3.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	80
그림 III-4.	원/달러 환율	81
그림 III-5.	기준금리 인하의 GDP 성장률에 대한 영향	81
그림 III-6.	국고채 3년물 금리 변동요인 분해	82
그림 III-7.	기준금리 인하 직후 30일간 장기 및 단기 시장금리 하락폭	82
그림 III-8.	금리 인하 충격시 소비자심리지수 반응	83
그림 III-9.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	83
그림 III-10.	기준금리 인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영향	83
그림 III-11.	거시건전성정책 기조 국면별 기준금리 인하의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84
그림 III-12.	가계대출금리 수준별 금리 하락의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84
그림 III-13.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차이	85
그림 III-14.	원/달러 환율, 미 달러화 지수, 정치불확실성 지수	85

(2) 통계표 차례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표 I-1.	주요국 경제성장률	3
표 I-2.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7
표 I-3.	주요 경제성장지표	8
표 I-4.	경상수지	10
표 I-5.	취업자수 증감	11
표 I-6.	고용률 및 실업률	12
표 I-7.	항목별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상승률	12
표 I-8.	경제성장률 전망	13
표 I-9.	고용 전망	14
표 I-10.	성장의 상·하방 요인	14
표 I-11.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표 I-12.	물가상승률 전망	18
표 I-13.	물가의 상·하방 요인	18
표 I-14.	기업의 자금조달	22
표 I-15.	주택매매·전세 가격 상승률 및 주택매매거래량	25
표 I-16.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26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표 II-1.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59
표 II-2.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내역	60
표 II-3.	RP매매 대상기관 확대 내역	60
표 II-4.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	61
표 II-5.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내역	61
표 II-6.	「금융안정회의」 내역	62
표 II-7.	공동검사 실시 횟수	63
표 II-8.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68

4.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부문	집필자
작성총괄	통화정책국 박충원 · 김태섭 · 강재훈 · 이병록 · 한대성 이선우 · 유재영(정책협력팀)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세계경제	조사국 김주현 · 이택민 · 조인식 · 강산(국제종합팀)
	국제국 유기한 · 임경울(국제총괄팀)
2. 실물경제	조사국 양준빈 · 김지현(경기동향팀) · 김혜림 · 진찬일(국제무역팀) 이영호 · 정강희(고용동향팀)
3. 물가	조사국 장태운 · 위승현(물가동향팀)
4. 금융 · 외환	금융시장국 김수정 · 김시은(채권시장팀) · 김주형 · 허성혁(자금시장팀) 백운아 · 유영서(주식시장팀) · 김민정 · 김태연(시장총괄팀) 한재근 · 김수근(기업금융팀)
	조사국 고동우 · 문태동(물가연구팀)
	통화정책국 정승렬 · 김영현(정책분석팀)
	국제국 오경현 · 전정호(외환시장팀) 신상호 · 이동민(자본이동분석팀)
[참고]	
-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조사국 이택민 · 김주현(국제종합팀) · 진찬일(국제무역팀) 부유신 · 고민지(조사총괄팀) · 이현아(미국유럽경제팀)
	경제모형실 주진철(금융모형팀)
-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금융시장국 류창훈 · 정기영 · 추승식(채권시장팀) 안제원 · 유영서(주식시장팀)
- 새로운 금융상황지수 추정 결과	통화정책국 정승렬 · 김영현(정책분석팀)
-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금융시장국 최신 · 권규빈(시장총괄팀)
-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 · 중 간 금융 시장 차별화 지속 가능성 및 국내 영향 점검	국제국 조유정 · 유기한 · 노윤정 · 임경울(국제총괄팀)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1.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임종수 · 최원용(정책총괄팀)
	금융시장국 우한솔 · 권세한(시장운영팀)
2.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화정책국 민지연(금융기획팀)
3. 시장안정화 대책	금융시장국 우한솔 · 권세한(시장운영팀)
4. 여타 통화신용정책 등	통화정책국 박도영(금융기획팀)
	금융시장국 김민정 · 김태연(시장총괄팀)
	국제국 이민섭(국제총괄팀)
	금융안정국 나성오 · 김휘인 · 유승원(안정총괄팀)
	금융검사실 김은숙(검사총괄팀)
	국제협력국 심연정 · 유현수(협력총괄팀)
	금융결제국 민호식(결제인프라안정팀) · 원창희(결제리스크관리팀)
	디지털화폐연구실 박종세(디지털화폐기획팀)
5. 향후 정책운영 방향	통화정책국 임종수 · 최원용(정책총괄팀)
	금융안정국 나성오 · 김휘인 · 유승원(안정총괄팀)
[참고]	
-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통화정책국 이군건 · 신동희(정책연구팀)
III. 이슈 분석	
1.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	통화정책국 박승문 · 정승렬 · 노유철 · 전제훈 · 정현진 김영현 · 연지은(정책분석팀)